

건설산업동향

CERIK

- ◇ 미래지향의 정책대안제시
- ◇ 인간존중의 건설문화창조
- ◇ 현장중심의 연구사업추진

발행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0-13 보전빌딩 12~14층 발행인 : 홍성웅 등록 : 1995년 6월 19일(제16-1149호) TEL : (02)3441-0600, FAX : (02)3441-0808

제 23호·1998·2·21

기계설비공사업 기술·기능인력 고용 실태

박 명 수
(CERIK 연구위원)

〈요 약〉

— IMF체제 하에서 더욱 심화되는 국내외의 경쟁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숙련된 기능직의 확보와 기술인력의 양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업계에서 신참 기능공의 숙련도는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고참 기능공은 노령화되어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기계설비공사업 332개 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얻었음.

하나, 기술인력의 총수는 2,211명으로 집계되었는데, 국가기술 자격자와 학력·경력자가 각각 반수를 차지하여 인정기술자 제도가 기술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방편으로써 유효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기술별로는 기계 분야의 기술자가 반수 이상을 차지함.

둘, 기능계 기술자격자는 1,068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용접공이 32.9%, 배관공이 28.4%의 비중을 보여 용접공과 배관공이 기계설비업체가 보유하는 기능인력의 61.3%로 전체 기능인력의 반수 이상을 차지함.

셋, 5년 이상 현장 실무 경험을 가진 기능인력은 모두 7,192명으로 조사되어, 인정기능사제도의 도입은 이들 무자격 기능공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게 되어 인력 부족난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넷, 생산 기능직에 대해서는 임시 고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상용 고용을 희망하는 업체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기능인력의 공급 부족에 대처하여 상용 고용함으로써 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정됨